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asurement Tool Development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이 병 기 (Byeong-Ki Lee)*

목 차

- | | |
|---------------------|--------------------------------|
| 1. 서론 | 3.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요인 분류 |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1 독서동기 측정도구 분석 |
|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 3.2 독서동기 요소 분류 |
| 2. 독서동기와 자기결정성 동기이론 | 4.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제안 |
| 2.1 독서동기와 요인 | 5. 결론 |
| 2.2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 | |

초 록

이 연구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적용하여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단순히 내적 동기와 외적 동기로 양분하지 않고, 개개인의 자율성 혹은 결정성에 따라서 무동기,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 등 6가지로 구분하였다.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은 동기 유형을 세분화하여 다양한 외재적 동기를 어떻게 내면화할 것인가에 중점을 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MRQ, MRP, ERAS, RSCS와 같은 기존의 독서동기 관련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이를 자기결정성원리에 의한 6개 범주로 재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독서동기 측정도구는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거 6개 영역 3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the measurement tool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elf-determination theory (SDT). SDT is not simply divided into the intrinsic and extrinsic motivation. SDT resides along a continuum, with amotivation, external regulation, introjected regulation, identified regulation, integrated regulation, intrinsic motivation. SDT addresses the process of internalization of various extrinsic motives. This study analyzed motivation factor of the measurement tool such as MRQ (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P (motivation to read profile) ERAS (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 (reading self-concept scale). The study re-classified analysis results based on SDT. Ultimately, this study was proposed measurement tool of reading motivation using SDT has 6 area, 30 items.

키워드: 독서동기,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 측정도구

Reading Motivation, Self-determination Theory, Motivation Theory, Measurement Tool

*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문헌정보교육과 교수(lisdoc@kongju.ac.kr)

논문접수일자: 2015년 7월 16일 최초심사일자: 2015년 7월 21일 게재확정일자: 2015년 8월 3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3): 311-332, 2015. [http://dx.doi.org/10.4275/KSLIS.2015.49.3.31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동기유발은 독서교육을 비롯한 모든 교육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영역으로 간주하고 있다.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학생들의 독서능력 신장 외에 독서동기 유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2013년 한국도서관협회에서 발간한 한국도서관 기준에 의하면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독서교육은 '교과학습, 특별활동, 학교행사, 교양·여가선용 등의 활동과 연계시켜 실시하되 다양한 방식(독서표창 등)으로 독서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라고 기술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13, 213). 또한, 미국학교도서관협의회에서 천명한 독서 관련 성명서에 의하면 사서교사는 학생들이 평생 독자가 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리더십 프로그램을 조직하고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AASL 2010, 1-2).

이와 같이 독서교육이나 독서 촉진 프로그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독서동기 유발이며, 동기유발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독서는 좋은 것이니 무조건 하라고 강요하는 교육은 의미가 없다. 문제는 독서동기란 어떤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객관적으로 학생들의 독서동기 수준을 측정, 평가하여 적절한 동기유발 전략을 독서교육이나 독서 촉진 프로그램에 적용할 것이냐에 달려있다. 학교교육에 있어서 특히, 독서자료의 제공과 독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서교사는 초·중등학생들의 독서동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측정, 평가하여 독서동기 유발 전략을 독서교육이나 독서촉

진 프로그램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초·중등학생들의 독서동기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예를 들면 조사지, 설문지 등)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객관적 신뢰도와 타당도를 갖춘 표준화된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국외의 경우에는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와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와 같은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개발되어 있으나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에 의한 전통적 접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에 심리학과 교육학 분야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동기이론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 각 분야에서 인간 동기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체계로 널리 수용되고 실증적 연구에 의거 지지를 받고 있는 동기이론 중의 하나로 자기결정성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결정성이론은 인간의 행동을 타율적인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로 양분하지 않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서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 등 다양한 동기 유형으로 구분하고, 어떻게 하면 자율성이 떨어지는 동기유형을 자율성이 높은 내재적 동기로 내면화할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측정도구는 양적연구에 의해서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보한 표준화된 도구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표준화된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기존의 독서

동기, 독서 태도와 독서 흥미 요인을 포괄함과 동시에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이 반영된 영역별 측정 항목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선행연구

본 연구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양적연구에 의한 표준화된 측정도구를 개발하기에 앞서 질적 문헌연구를 통해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이 반영된 설문조사 형태의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

첫째, 문헌연구를 통해 독서동기의 개념과 관련된 용어간의 관계를 정립하고,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서 제시하고 있는 6가지 동기 유형(무동기,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된 조절, 내재적 동기)별 개념 및 특징을 규명한다.

둘째,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등 4개의 독서동기와 관련된 기존 측정도구의 내용과 특징을 분석하고, 분석내용을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가지 동기 유형에 맞추어 재분류하고자 한다. 측정도구 4가지를 선정한 이유는 Conradi (2014) 등이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영문 저널에 발표된 92개의 독서동기 관련 논문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독서동기를 실질적으로 측정하는데 적용 빈도가 높은 것을 대

상으로 하였다. 독서동기 측정 연구에서 측정도구의 적용 빈도를 보면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가 29.3%로 가장 높고,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 10.9%,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7.6%,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3.3% 순으로 나타났다(Conradi et al. 2014, 147).

셋째, 4개의 측정도구 분석 결과와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개 범주별로 재분류한 독서동기 요소를 바탕으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설문조사 형태로 제안하고자 한다.

Conradi(2014) 등은 독서동기와 관련된 계량서지학적 연구에서 Psynet, EBSCO, ERIC 등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탐색한 독서동기 관련 연구가 1,429개에 이르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그 중 일정 기준에 의거 분석 대상 연구물 92개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독서동기와 관련된 연구는 교육학을 비롯한 언어교육, 독서교육 분야의 주요 연구 과제이며, 매우 대중적인 연구 과제임을 알 수 있다. 독서동기와 관련하여 2000년대 이전에는 주로 독서 태도와 독서 흥미의 관점에서 독서동기를 규명하였으며(Alexander and Filler 1976; McKenna and Kear 1990), 독서 가치, 독서 자아개념, 자기 효능감 등 독서 요인을 규명하고 독서동기를 측정하려는 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이후 2000년대 초반에 주로 이루어졌다(Gambrell et al. 1996; McKenna and Kear 1990; Wigfield, Guthrie and McGough 1996). 2000년도 이후에는 기존에 개발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기반으로 독서동기 요인을 보다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독서 요인간의 관계와 영향 정도를 밝히는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Applegate and Applegate

2010; Coddington and Guthrie 2009; Ghaith and Bouzeineddine 2003).

국내의 경우에는 독서동기 측정도구 자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으며, 독서동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밝히고 요인을 범주화하려는 연구(이순영 2006; 박재용 2009)가 있다. 또한, 남녀학생이나 초중등 학생 등 독립변인간의 독서동기의 차이를 규명하려는 연구가 있다(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2010; 박영민 2006).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외를 막론하고 동기 이론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반영한 독서동기 요인 규명이나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에 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볼 수 없으며, 국내의 경우에는 독서동기 측정도구 개발 자체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2. 독서동기와 자기결정성 동기이론

2.1 독서동기와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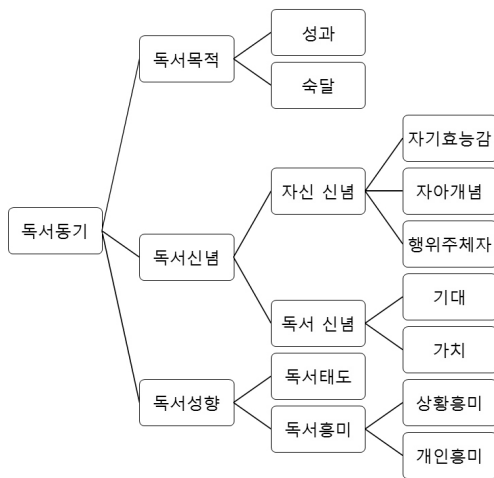
동기란 움직임을 뜻하는 라틴어 'movere'에서 유래한 것으로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일이며, 동기를 유발시키는 일을 동기유발(motivation)이라 한다. 동기이론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는 동기에 대한 개념 정의를 보면 동기란 행동을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행동의 방향과 목표를 제시하며 행동의 수준이나 강도를 결정하는 내적 상태로 보

고 있다(Pintrich and Schunk 1996, 23).

독서동기는 독서행위를 유발하여 독서 과정을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이끌어 가는 핵심요인으로서 독서동기가 높으면 효과적인 독서를 수행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 독서동기는 독서 행위를 촉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강화시키는 독자의 다면적 심리구조이다. 독서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읽기 목적, 읽기 태도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상호작용하며 복합적으로 작용한다(한국어문교육연구소, 국어과교수학습연구소 2006, 106). 이처럼 독서동기는 단순하고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심리학적 개념이 아니라 독서에 대한 개개인의 신념과 태도, 흥미, 목적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독서행위를 일으키는 책을 읽고자 하는 마음이다.

독서동기와 관련된 독서 태도 및 흥미간의 개념적 차이와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Conradi (2014, 155) 등은 2003년부터 2013년까지 영문 저널에 발표된 92개의 독서동기 관련 논문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한 결과 <그림 1>과 같이 독서동기를 구성하는 요인간의 관계도를 제시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기는 독서 목적, 독서 신념, 독서 성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독서신념은 자기 자신에 대한 신념과 독서에 대한 신념으로 구성된다. 독서 태도와 독서 흥미는 독서 성향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며, 독서 성향은 독서동기를 형성하는 주요 요인이다. 이와 같이 독서동기는 단순히 내재적 요인과 외재적 요인으로 양분하기 어렵고, 자아개념이나 독서 목적, 호기심 등 다양한 심리적 기제가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는 독서태도 측정도구이고,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는 독서 자아개념을 측정하는 도구이지만 독서 태도와 독서 자아개념은 모두 독서 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이라는 측면에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림 1〉 독서동기 요인 관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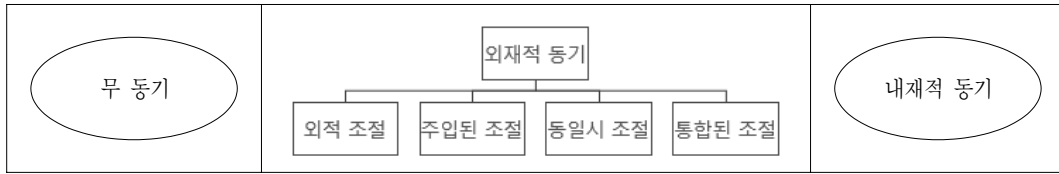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동기요인을 반영한 독서동기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특히 최근에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동기이론인 자기결정성의 원리에 의한 독서동기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2.2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

최근 국내외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대표적인 동기이론의 하나로서 자기결정성 이론(self-

determination theory)이 있다. 자기결정성은 한 개인이 누군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스스로 주어진 상황에 대처하고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다고 느끼는 정도로서 통제된 의도와 구분하여 Deci와 Ryan(1985)이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자기결정성은 보상이나 외부 압력 등에 의해서 강요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고,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개인의 자율적 의도 즉,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것은 스스로의 즐거움이나 만족감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 행동이며,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것은 강압이나 강요에 의해 행동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성 이론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Ryan and Deci(2000, 61)는 어떤 활동을 유발한 동기는 상, 벌, 강요와 같은 외적 수단에 의한 것과 그 자체가 좋아서 하는 내적 요인으로 양분하기 보다는 개인의 자율성 혹은 결정권이 어느 정도 반영되었는지에 무게를 두어 〈그림 2〉와 같이 세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은 누가 요청하거나 압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그들의 환경을 탐색, 이해, 동화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제에 기초하고 있다. 이 관점에서 자기결정성의 정도에 따라 외재적 동기가 여러 유형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자기결정성의 연속선상의 한쪽 극단에는 행동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무동기(amotivation) 상태가 있으며, 다른 한쪽 극단에는 내재적 동기를 두고 그 사이에 자기결정성의 수준에 따라 외재적 동기 유형을 외적 조절(external regulation), 주입된(introjected) 조절, 동일시 된(identified) 조절, 통합된(integrated) 조절의 네 유형으로 구분하여 차례로 위치시키고 있다(양미경 2012, 190).



〈그림 2〉 자기결정성에 따른 동기 유형

무동기에서 내재적 동기에 이르기까지 자기 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6개 범주의 동기 유형에 대한 자율성의 정도와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무동기 상태이다. 행동할 의도가 결핍된 상태로 행동을 하지 않거나 의도 없이 행동을 하는 무동기 수준이다. 무동기 상태에 있는 학습자들은 과제 수행에 가치를 두지 않으며 자신이 그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도 않는다(이경화 외 2011, 324). 학습된 무기력감과 비슷한 무동기는 외부에서 유인자극을 주거나, 처벌을 가해도 학습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상태이다. 무동기는 자신의 행동과 행동 결과 사이의 연관성을 지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동에 긍정적인 결과가 뒤따랐을 때에도 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경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못한다. 무동기 상태에 빠진 사람은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것도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이민희, 정태연 2007, 304).

둘째, 외재적 동기 중 자기결정성이 가장 낮은 외적 조절 수준이다. 외적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행동을 한다. 이러한 행동에는 자기결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적 행동이다. 외재적 조절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부모나 교사가 제공하는 외적 보

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하여 과제를 수행한다(이경화 외 2011, 325). 자기결정성이 거의 없는 외적 조절 상태에서는 규칙을 따르거나 처벌을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행동을 하며, 인과의 소재가 거의 전적으로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고 외부적인 요구나 보상 때문에 행동을 하는 수준이다. 학습을 하는 동기에 대해 '선생님께 야단맞고 싶지 않으니까, 규칙이니까' 등으로 반응하는 것은 이 수준의 동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양미경 2012, 190). 보상을 받기위해 공부를 하는 것, 야단맞지 않기 위해 공부하는 것, 시험 기간이 닥쳐와서 공부를 하는 것,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숙제를 하는 것 등이 외적 조절에 속하며, 외적 조절에 의한 동기는 효율성이 떨어지며 동기의 지속력이 약하다(이민희, 정태연 2007, 304).

세 번째 동기 유형은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주입된 조절이다. 주입된 조절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교사가 자신을 좋은 학생으로 생각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든지, 과제를 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용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든지, 하지 않으면 수치스럽기 때문이라든지 등의 이유로 과제를 수행한다.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거나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행동하며, 외부에 의해 요구되는 것만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결정이

미약하나마 반영되는 수준이다. '선생님이 나를 좋은 학생으로 생각해주기를 원하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질 것이니까, 하지 않으면 스스로 괴로우니까' 등의 반응이 이 수준에 속한다(양미경 2012, 190).

네 번째 동기 유형은 외적으로 조정되었던 가치나 목표를 자신의 것으로 수용, 선택하여 자신의 가치나 목표와 동일시하여 행동하는 동일시된 조절이다. 동일시 조절에 의해 동기화된 학습자는 그 과목에 대해 이해하기를 원해서, 대학 진학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배우기를 원해서와 같이 개인적 중요성이나 자신이 설정한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이경화 외 2011, 325).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상당 부분 스스로 행동을 선택하는 높은 수준의 자기결정성을 지니고 있으나 자체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기보다는 목표의 달성으로 인한 외재적 가치에 주목한다는 점에서 외재적 동기 유형의 한 단계인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그 주제를 이해하기를 원하니까'와 같은 반응이 이 수준에 해당된다(양미경 2012, 190).

다섯 번째 동기 유형은 특정 행동이 갖는 바람직한 측면을 받아들여 자신의 가치체계에 통합하여 발현되는 행동인 통합적 조절이다. 동일시된 가치와 조절이 자아에 완전히 동화되었을 때 발생하며 외적 동기 중 가장 자기 결정적인 형태이다. 통합된 조절은 환경에 의해 강요되거나 방해되는 것이 아니라 내면화의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통합은 자기조절이 매우 성숙된 단계이기 때문에 자기 반성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기 이후에나 획득할 가능성이 있다(Ryan and Deci 2000). 통합된 동기에 따른 행동은 내적동

기와 공통점이 많지만 특정한 과제 수행 자체에 내재해 있는 즐거움보다는 그 밖의 다른 결과를 얻기 위해서 행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외적 동기에 의한 행동으로 간주한다. 이 수준에서는 자아의 가치가 외부의 가치 혹은 요구와 완전히 일치되고 내면화된 상태로서 자기결정에 의거하여 행동을 하는 단계이다. 그러나 전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가치판단에 따른다고 해도 어떤 행동의 내재적 가치가 아닌, 도구적 가치에 의지한 행동이라는 점에서 내재적 동기와는 구분된다(양미경 2012, 190).

끝으로 6개 범주의 동기 유형 중 자기결정성이 가장 높은 내재적 동기이다. 내재적으로 동기화된 학습자는 학습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만족이나 즐거움, 재미 등을 얻기 위해 과제를 수행한다. 따라서 이들은 도전적인 과제를 선호하고 호기심 때문에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 과제 수행의 결과를 자신의 내부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이경화 외 2011, 325).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은 외재적 동기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던 종전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의 유형을 세분함으로써 외재적 동기를 점차 내재적 동기로 내면화하는 과정을 강조함으로써 교육적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다(양미경 2012, 196).

3.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요인 분류

본 연구에서는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 MRP(motivation to read pro

file),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 등 4개의 독서동기 관련 측정도구에 포함된 설문 항목을 분석하고, 각각의 세부 요인을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거 재분류하고자 한다. 재분류를 통해 기존의 측정도구가 얼마나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개 범주에 해당하는 요인(혹은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3.1 독서동기 측정도구 분석

3.1.1 MRQ

MRQ(motivations for reading questionnaire)는 미 교육부의 후원아래 운영되는 국가독서연구센터(NRRC)의 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1996년에 개발한 설문지 형태의 독서동기 측정도구이다(Wigfield, Guthrie and McGough 1996). MRQ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기를 구성하는 요인을 3개 범주, 11개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 영역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을 배치하고 있다. 설문문항은 총5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설문문항은 1-4점 척도(매우 다름, 약간 다름, 약간일치, 매우일치)로 편성되어 있다.

MRQ 설문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3개 범주, 11개 차원은 1995년에 이루어진 Wigfield와 Guthrie의 연구에 바탕을 두고 있다. Wigfield와 Guthrie는 그 당시 리더러시 연구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독서 흥미와 독서태도만으로는 독서동기를 완전하게 설명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널리 수용되고 있는 심리학적 연구결과

를 독서동기 요인을 규명하는데 적용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Wigfield and Guthrie 1995).

<표 1>에서 제시한 3개 범주, 11개 차원, 54개 설문 문항을 중심으로 MRQ 독서동기 측정도구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주는 능력 및 효능감에 대한 믿음이다. 이 범주는 독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에 해당하는 '독서 효능감', 어려운 책을 읽어 보려 시도하려는 '도전감', 독서 활동을 싫어하거나 벗어나려는 욕구에 해당하는 '독서 회피'차원이 여기에 속한다.

둘째 범주는 독서 목적이다. 이는 학생들이 독서하는 이유나 목적에 따른 독서동기 유형으로서 다양한 형태의 내재적, 외재적 동기 요인과 성취 목적, 성취 가치 등의 차원이 포함되어 있다. 내재적 동기 요인으로는 관심 있는 주제나 토픽의 책을 읽으려는 '호기심', 독서에 대한 즐거움으로서의 '독서몰입', 독서에 대한 과제 가치로서의 '독서 중요성' 차원이 있고, 외재적 요인으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얻고자 하는 '타인 인정', 독서에 대한 성취도에 해당하는 '독서 점수', 다른 사람보다 책을 많이 잘 읽으려는 욕구로서의 '독서경쟁' 등이 있다.

셋째 범주는 사회적 목적이다. 이는 본질적으로 독서가 사회적 소통과정임을 반영한 것이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친구나 가족과 더불어 독서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책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통해 교감하는 '사회적 작용'을 통해 동기가 유발될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또한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동기 유발 요인으로 '순응'이 있으며, '필요하니까, 선생님이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책을 읽는다'와 같은 설문이 순응에 해당한다.

〈표 1〉 MRQ의 독서동기 측정 영역 및 문항 내용

범주	차원	문항수(총54)	문항내용
능력 및 효능감에 대한 믿음	독서 효능감	4	3(내년에는 독서를 더 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9(유능한 독자라고 생각한다), 15(다른 친구들보다 독서를 통해 많은 것을 배운다), 50(다른 교과에 비해 독서를 가장 잘한다)
	도전감	5	2(어렵고, 도전적인 책 읽기를 좋아한다), 7(사색적인 책 읽기를 좋아한다), 26(나는 독서를 통해 어렵고 몰랐던 것을 배운다), 44(과제가 재미있으면 어떠한 자료라도 읽을 수 있다), 48(재미있는 책을 만나면 어려운 책이라도 읽는다)
	독서회피	4	23(단어가 너무 어려운 책을 읽기 싫다), 27(단어에 대한 질문을 좋아하지 않는다), 28(이야기가 복잡한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52(등장인물이 너무 많은 이야기 책은 좋아하지 않는다)
독서목적	호기심	6	5(나는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 흥미로운 것이 있으면 그것에 관한 책을 더 많이 읽는다), 8(나의 취미에 대해 더 잘 알기 위하여 취미 관련 책을 많이 읽는다), 13(흥미 있는 주제의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 16(나는 새로운 것에 대한 독서를 좋아한다), 35(흥미로운 책을 읽다보면 시간가는 줄 모를 때가 있다), 45(다른 나라의 사람들에 대한 책 읽기를 좋아한다)
	독서몰입	6	10(공상 소설을 좋아하고, 이를 진실로 믿는다), 24(책을 읽을 때 마음속으로 그 장면으로 그려본다), 30(책속에 나오는 인물이 친구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 33(추리 탐정 소설을 좋아한다), 41(나는 오래 몰입할 수 있는 장편 소설을 좋아한다), 46(모험 관련 책을 좋아한다)
	독서 중요성	2	53(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54(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의 사회적 목적	타인 인정	5	14(다른 친구들이 나에게 대해 유능한 독자라고 말한다), 17(선생님이 책을 잘 읽는 학생이라 칭찬해 주는 것이 좋다), 29(누군가가 나의 독서활동을 인정해 주면 행복하다), 31(책을 읽고 있을 때 부모님께서 잘한다고 칭찬한다), 36(나의 독서생활에 대한 칭찬을 좋아한다)
	독서 점수	4	19(좋은 독서점수를 고대하고 있다), 37(독서 점수는 독서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라 생각한다), 39(나는 독서점수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40(부모님은 나의 독서점수를 궁금해 하고 묻기도 한다)
	독서 경쟁	6	12(읽은 내용 중 아는 사람이 나 혼자였으면 좋겠다), 18(나는 최고의 독자가 되고 싶다), 22(유능한 독자 명단에 오르는 것은 나에게 매우 중요하다), 43(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은 정답을 얻으려고 노력한다), 49(다른 친구들보다 빨리 책 읽기를 마치고 싶다), 51(다른 친구들보다 책을 더 잘 읽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독서의 사회적 목적	사회적 상호작용	7	1(가족과 함께 종종 도서관에 간다), 11(나는 형제자매들에게 책을 자주 읽어준다), 20(중중 부모님께 책을 읽어드린다), 21(친구와 서로 책을 바꿔서 읽기를 좋아한다), 34(친구들에게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한다), 38(나는 친구의 독서관련 숙제를 도와주고 싶다), 42(가족들에게 나의 독서활동에 대해 이야기 한다)
	순응	5	4(학교생활 중 꼭 필요한 경우에만 독서를 한다), 6(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서를 한다), 25(선생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독서활동을 한다), 32(독서관련 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47(정해진 시간 내에 책읽기를 끝내려고 노력한다)

3.1.2 MRP

MRP(motivation to read profile)는 1996년에 Gambrell 등이 개발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이다(Gambrell et al, 1996). 학교 교실에서 독서 관련 동기를 유발하고자 할 때 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측정도구이다. 학생들이 독서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독자로서의 자아개념 수준을 파악하여 적절한 교수 설계와 수업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이다. MRP는 1996년에 발표된 초기 버전 외에 MRP-R(motivation to read profile-revised)이 있다. MRP-R은 1996년판 MRP를 수정, 보완한 것으로 디지털 독서와 같은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2013년에 발표하였다(Malloy et al, 2013, 274). MRP와 MRP-R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구조로 구성되어 있고, 동일한 심리학적 배경

이론을 채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RP-R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MRP-R은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서동기를 독서 가치와 독자 자아개념으로 구분하여 관련된 설문 문항을 10개씩 배치하여 총 20개 문항으로 편성하고 있다. 20개의 각 설문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MRP-R의 영역 중 ‘독서 가치’는 가치-기대이론에 근거하고 있으며, ‘독자 자아개념’은 자아개념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가치-기대 이론은 성공할 것이라는 기대와 그 성공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의 정도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된다는 것이다(Eccles 1983). 자아개념은 한 개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신념체계로서 나 자신에 대한 자각이라 할 수 있다(김아영 2008, 292).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독자 자아개념’

<표 2> MRP-R(독서동기)

영역	문항수	문항내용
독서 가치	10	1 (나에 대해 친구들은 유능한 독자라 생각한다) 3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 해결한다) 5 (나는 내 친구들 보다 책을 잘 읽는다) 7 (혼자서 책을 읽을 때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9 (나는 유능한 독자이다) 11 (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된다) 13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선생님이 질문하면 거의 대답할 수 있다) 15 (독서는 매우 쉬운 일이다) 17 (읽은 책에 대해 모둠으로 토론할 때 내 의견을 말하는 편이다) 19 (소리 내어 읽으면 훌륭한 독자라고 생각한다)
독자 자아개념	10	2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4 (내 친구들은 독서는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6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8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다) 10 (도서관은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라고 생각한다) 12 (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14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16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우 흥미롭다) 18 (여유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는다) 20 (누군가 나에게 책을 선물해 주면 행복하다)

에 해당하는 설문 문항으로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이다,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한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이다' 등이 있다.

3.1.3 ERAS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는 McKenna and Kear(1990)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독서태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고안한 도구이다.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ERAS는 레크레이션 즉, 여가 활동으로서의 독서와 관련된 10개 문항과 교과 및 학업 독서와 관련된 10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전체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별 척도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림 3>과 같이 긍정적 표현에서 부정적 표현에 이르기까지 정서적 느낌을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다.

ERAS는 여가 독서와 학업적 독서의 2개 영역별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서 최저 10점

<표 3> ERAS(elementary reading attitude survey)의 독서태도 측정도구

영역	문항수	문항내용
여가 독서	10	1. 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2. 여유 시간에 학교에서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3. 집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4. 선물로 책을 받았을 때 기분이 어떤가? 5. 독서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기분이 어떤가? 6.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기분이 어떤가? 7. 방학 중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8. 놀이 대신에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9. 서점에 갈 때 기분이 어떤가? 10. 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학업적 독서	10	11. 읽은 책에 대해 선생님께서 질문하면 기분이 어떤가? 12. 학습지나 활동지가 있는 책을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13. 학교에서 책을 읽으면 기분이 어떤가? 14. 교과서를 읽을 때 기분이 어떤가? 15. 책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6. 학급 수업 시간에 책을 읽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7. 독서 수업시간에 읽은 스토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8. 교실에서 소리 내어 읽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19. 사전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20. 독서점수에 대해 말할 때 기분이 어떤가?



Very Happy



A Little Happy



A Little Upset



Very Upset

<그림 3> ERAS의 문항별 척도

에서 최대 40점까지 획득하도록 편성되어 있다. 이 측정도구에 의한 점수는 개개 학생의 절대점수가 아니라 규준참조평가로 한 개인이 속해 있거나 혹은 속해 있지 않더라도 비교가 되는 집단 속에서 다른 사람보다 얼마나 더 성취했느냐 하는 상대적인 비교를 통해서 수준을 결정하는 평가체제이다(McKenna and Kear 1990, 629).

ERAS의 개발자인 McKenna는 자신의 독서태도 모형을 통해 독서태도를 독서동기의 주요 요인으로 보고 있으며, 독서태도의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직접적 효과와 간접적 효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직접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주관적 규범에 대한 신념, 독서 결과에 대한 신념, 과거 독서 경험이 있고, 간접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요소로는 사회체제 및 환경이 있다. 주관적 규범에 대한 신념이란 부모, 교사, 친구 등의 주위사람들이 독서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느냐에 대한 신념 혹은 인식을 말하며, 독서 결과에 대한 신념은 독서 후의 결과 무엇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기대를 말한다. 과거 독서 경험은 즐거움, 보상과 같은 긍정적 경험과 더불어 지루함, 실패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독서태도나 독서동기에 영향

을 미치는 경우를 말한다. 끝으로 간접적 효과로서의 사회체제나 환경은 부모의 독서생활이나 가정에 보관하고 있는 장서나 장서수 등에 의해서 학생들의 독서태도나 동기가 달라질 수 있음을 나타내는 요소이다(McKenna 1990, 30-31; 변우열 2015, 229-230).

3.1.4 RSCS

RSCS(Reading Self-concept Scale)는 Chapman과 Tunmer(1995)가 개발한 독서 자아개념 측정도구이다. 이 측정도구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의 정도 곧 신념에 따라서 독서 성과는 물론 독서 태도나 독서동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자아개념을 바탕으로 한다. 자아개념을 이용하여 Chapman과 Tunmer(1995)는 독서 자아개념을 설명하고 있으며, 독서 자아개념을 형성하는 구성요인을 독서능력과 난이도, 독서태도 등 3가지로 보고, 3개의 영역별로 10 문항을 배치하여 총 30개 문항으로 구성된 RSCS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 각 측정 문항은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RSCS에 의한 독서 자아개념 측정도구의 주요 내용은 <표 4>와 같다.

<표 4> RSCS 독서 자아개념 측정도구

영역	문항수(30)	문항내용
독서능력	10	1. 스토리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4. 책을 읽을 때 어려운 단어를 만나면 스스로 해결한다. 7. 책을 읽은 것은 매우 쉬운 일이다. 9 책을 읽으면서 단어 기억을 잘한다. 12. 새로운 단어를 만나도 문제없이 책을 읽을 수 있다. 15. 책을 읽으면서 잘 못 이해한 부분은 바로 수정하면서 읽을 수 있다. 21. 책을 읽으면서 단어의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다. 24. 빠르게 책을 읽을 수 있다. 27.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28. 그림이 없더라도 난이도가 있는 단어로 된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다.

영역	문항수(30)	문항내용
난이도	10	3.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은 쉽지 않다. 6. 교실에서 읽는 책의 내용이 어렵다. 11.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 14.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 17.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줄 사람이 있는가? 18. 책을 읽으면서 잘 못 이해할 때가 많은가? 20. 책을 읽으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는가? 23. 책을 읽을 때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가? 26. 꼭 읽어야만 하는 책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가? 28. 책을 읽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
독서태도	10	2.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다. 5. 학급 시간에 이루어지는 단어게임을 좋아한다. 8. 부모님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좋아한다. 10. 책 읽는 것이 매우 즐겁다. 13. 단어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한다. 16. 독서에 흥미가 있다. 19. 독서를 고대하고 있다. 22.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 좋다. 25. 교실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30. 가정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한다.

독자로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갖고 있더라도 자신의 독서능력이나 독서 난이도에 대한 지각에 따라서 자아개념이 달라질 수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개개인이 스스로에 대해 '나는 훌륭한 독자이다'라고 인식하고, 책을 읽는 것은 쉬운 일이라고 생각할수록 그렇지 않은 즉, 독서 자아개념이 낮은 사람에 비해 높은 독서동기와 독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3.2 독서동기 요소 분류

MRQ, MRP, ERAS, RSCS 등 앞서 분석한 측정도구에 포함된 독서동기 관련 요소(요인)를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한 동기 유형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재분류를 통해 기존의 측정도구가 얼마나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개 범주에

해당하는 요인(혹은 설문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수정, 보완하여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활용코자 한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의 무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무동기는 말 그대로 행동하려는 아무런 의지가 없는 상태로 어떤 행동이나 활동을 좋아하지 않는 수준이다. MRQ의 11개 독서동기 요인 중 '독서 회피'에 해당한다. MRP, ERAS의 경우에는 무동기에 해당하는 요소는 보이지 않으며, RSCS의 경우에는 '책을 읽으면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라는 1개 항목이 이에 속한다 (<표 5> 참조).

둘째, 자기결정성 원리의 외적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외적 조절은 외적보상이나 압력 혹은 제약에 순응하기 위해 행동하는 수준이다. 외적 보상을 얻거나 벌을 피하기 위하여 과제를

〈표 5〉 무동기 관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무동기	〈독서회피〉 23(읽기 싫다), 27(독서 질문 좋아하지 않는다), 28(구조가 복잡한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52(등장 인물이 많은 책을 좋아하지 않는다)	-	-	28(책을 읽으면서 불행)

〈표 6〉 외적조절 관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외적 조절	〈독서접수〉 19(좋은 독서접수), 37(독서 접수 수단), 39(독서접수 향상), 40(부모 님은 나의 독서접수에 관심) 〈순응〉 (필요한 경우에만 독서), 6(어쩔 수 없이 독서), 25(시킬 때만 독서), 32(숙제를 끝내기 위해서 독서), 47(정해진 시간 내에 독서)	-	12(학습지나 활동지가 있 는 책), 13(학교에서 책 읽기), 14(교과서를 읽을 때), 15(책을 읽으면서 공 부), 16(수업 시간에 책 읽기), 20(독서접수에 대 해 말할 때)	3(교실 독서), 5(단계 읽), 6(교실에서 읽는 책 의 내용), 25(교실에서 책 을 읽기), 26.(꼭 읽어야 만 하는 책)

수행하며, 자기결정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타율적 행동이다(〈표 6〉 참조).

MRQ의 11개 독서동기 요인 중 ‘독서 접수, 순응’에 해당한다. ERAS의 경우에는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교과서를 읽을 때, 수업 시간에 공부하기 위해서 등 독서 자체의 즐거움이나 만족 감보다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니까 독서를 하는 정도의 요소들이 여기에 속한다. RSCS의 경우에는 ‘교실에서 책읽기, 꼭 읽어야 하는 책 읽기’ 등은 외압이나 강요에 의해 책을 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판단하여 여기에 배치하였다.

셋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중 자기결정성 원리의 주입된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주입된 조절은 자신이나 타인의 인정을 추구하며 죄책감이나 불안 혹은 자기 비난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다. MRQ의

경우에는 ‘타인 인정’, ‘독서 경쟁’, ‘사회적 작용’ 요인이 이에 속한다. MRP의 경우에는 ‘나에 대해 친구들은 유능한 독자라 생각할 수 있도록, 내가 읽은 책에 대해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도록’ 등과 같이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해 독서를 하는 경우나 ‘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 되어서’와 같이 불안이나 비난을 피하기 위해 동기화된 요소 등이 포함되어 있다. ERAS의 경우에는 읽은 책에 대해 선생님께서 질문할 때, 선물로 책을 받았을 때 기분, 서점에 갈 때 등 독서와 관련된 사회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나 자기결정성 원리의 주입된 조절과 완전하게 일치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 RSCS의 경우에는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더 어려운 책을 읽고 있다, 다른 친구들은 나보다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한다’와 같은 타인

인정이나 경쟁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고,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줄 사람, 책을 읽을 때 특별한 도움을 필요로 한다'와 같이 독서 활동과 관련된 사회적 작용 요인이 포함되어 있다(〈표 7〉 참조).

넷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중 자기결정성 원리의 동일시 조절에 해당하는 부

분이다.

개인적인 중요성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수준에 해당하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하니까, 필요하니까'와 같은 반응이 이에 해당한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MRQ의 경우에 자기결정성 원리의 동일시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때

〈표 7〉 주입된 조절 관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주입된 조절	〈타인인정〉 14(유능한 독자), 17(선생님이 칭찬), 29(독서활동인정), 31(부모님 칭찬), 36(독서생활에 대한 칭찬) 〈독서경쟁〉 12(혼자만 알기), 15(다른 친구), 18(최고의 독자), 22(유능한 독자 명단), 43(더 많은 정답), 49(빨리 책 읽기), 51(더 잘 읽기) 〈사회적 상호작용〉 1(가족과 함께 도서관), 11(친구에게 책 읽어주기), 20(부모에게 책 읽어주기), 21(친구와 서로 책을 바꿔서 읽기), 34(읽은 책에 대해 이야기), 38(친구의 독서관련 숙제 도와주기), 42(가족들에게 나의 독서활동 이야기하기)	1(나에 대해 친구들은 유능한 독자라 생각), 5(나는 내 친구들보다 책을 잘 읽음), 11(친구들이 책을 읽지 않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이 걱정), 6(읽은 책에 대해 친구들에게 이야기), 10(도서관은 시간 보내기 좋은 장소), 13(선생님 질문), 17(모둠토론), 20(책 선물)	4(책 선물), 11(선생님 질문), 9(서점에 갈 때)	8(부모님에게 책 읽어주기), 11(더 어려운 책), 14(더 책을 잘 읽는다고 생각), 17(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도와줄 사람), 23(책을 읽을 때 특별한 도움)

〈표 8〉 동일시 조절 관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동일시 조절	〈독서중요성〉 53(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 54(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	12(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함), 4(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	-	-

우 중요하다, 다른 어떤 활동과 비교해도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와 같이 독서나 유능한 독자가 되는 것을 매우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경우를 들 수 있고, MRP의 경우에도 '훌륭한 독자가 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독서로 시간을 보내는 것은 매우 좋은 일이다' 등이 동일시 조절에 해당한다. ERAS와 RSCS의 경우에는 동일시 조절에 해당 요소를 발견할 수 없었다.

다섯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중 자기결정성 원리의 통합된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통합된 조절은 내재적 가치가 아니라 도구적 가치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완전한 내재적 동기와는 차이가 있다. 학습의 관점에서 왜 공부를 하는가? 혹은 공부하게 된 계기나 동기가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통합된 조절에 해당하는 요소를 들어 보면, '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등이 이에 해당한다. 공부 자체가 즐겁고 만족스러워서 아니라 다른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생각하는 수준이 통합된 조절에 의한 행

동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표 9>에 제시된 요소들은 주로 독서능력, 독서 효능감에 대한 것으로 자기결정성 원리의 범주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 '통합된 조절'에 분류하였으나 외적 조절이나 주입된 조절에 포함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개발할 때 통합된 조절에 해당하는 부분은 MRQ, MRP, ERAS, RSCS에서 제시하고 있는 독서 효능감, 독서능력 외에 독서와 관련된 통합된 조절 요소를 추가로 확대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여섯째, 측정도구에 나타난 독서동기 요소 중 자기결정성 원리의 내재적 동기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내재적 동기는 개개인의 자발적인 동기로 어떤 일이나 행동 그 자체에서 만족감이나 즐거움으로 인해 동기화된 행동이다. MRQ의 경우에는 내재적 동기와 관련된 요소로서 도전감, 호기심, 독서몰입 등의 요소가 있고, MRP의 경우에도 '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독서는 재미있다고 생각, 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우 흥미' 등이 있다(<표 10> 참조).

<표 9> 통합된 조절 관련 독서동기 요소

측정도구 자기결정성	MRQ	MRP	ERAS	RSCS
통합된 조절	<독서 효능감> 3(독서를 더 잘할 것), 9(유능한 독자), 50(독서를 가장 잘함)	3(모르는 단어 해결), 7(모든 내용 이해), 9(유능한 독자), 15(독서는 매우 쉬운 일)	19. 사전 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독서능력> 1(의미 이해), 4(스스로 해결), 7(책을 읽은 것은 매우 쉬운 일), 9(책을 읽으면서 단어 기억함), 12(새로운 단어), 15(수정하면서 읽음), 21(발음을 정확히 함), 24(빠르게 책을 읽음), 27(잘 읽는다고 생각), 28(스토리 이해), 18(잘 못 이해할 때가 많음), 20(책을 읽으면서 무지하다고 생각해본 적이 있음)

〈표 10〉 통합된 조절 관련 독서동기 요소

자기결정성 \ 측정도구	MRQ	MRP	ERAS	RSCS
내재적 동기	〈도전감〉 〈호기심〉 〈독서몰입〉	2(독서는 내가 하고 싶은), 4(독서는 재미있다고 생각), 8(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은 매우 흥미로운 사람들), 16(선생님이 큰 소리로 책을 읽으면 매우 흥미), 18(여유시간이 있을 때 책을 읽음)	1(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을 때 기분), 3(집에서 재미있는 책을 읽을 때), 5(독서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6(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7(방학 중에 책을 읽을 때), 8(놀이 대신에 책을 읽을 때), 10(다른 종류의 책을 읽을 때)	〈독서태도〉 2(책을 읽으면 기분), 10(책 읽는 것이 매우 즐거움), 13(단어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함), 16(독서에 흥미가 있음), 19(독서를 고대하고 있음), 22(스스로 책을 읽는 것이 좋음), 30(가정에서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함)

ERAS의 경우에도 ‘비오는 날 주말에 책을 읽을 때, 독서로 여유 시간을 보낼 때, 새로운 책을 읽기 시작할 때’ 등 독서로 인한 만족감, 즐거움과 관련된 요소가 있다. RSCS의 경우에는 ‘책 읽는 것이 매우 즐거움, 단어가 많은 이야기책 읽기를 좋아함, 독서에 흥미가 있음’ 등 자발적 동기와 관련된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4.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제안

MRQ, MRP, ERAS, RSCS 등 앞서 분석한 측정도구에 포함된 독서동기 요소를 자기결정성 원리 즉, 무동기, 외재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적 조절, 내재적 조절 등 6개 범주로 재분류하였다. 그 결과, MRQ는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 중 통합된 조절 외에 나머지 다섯 개 영역에 해당하는 독서 동기를 두루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MRP, ERAS, RSCS는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 중 부분적으로만 반영되고 있고 무동기, 외적조절, 동

일시 조절 등의 영역은 반영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 중 주입된 조절, 내재적 동기 등 특정 범주에 편중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동일시 조절과 같이 재분류된 항목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측정도구만으로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반영한 독서 동기 측정도구로 사용하기 어렵고 자기결정성의 원리 즉, 무동기, 외재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적 조절, 내재적 조절 등 6개 범주가 반영된 독서 동기 측정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서 분석한 내용과 자기결정성 이론을 반영하여 새로운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의 개발 원칙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거 측정도구의 영역을 무동기,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적 조절, 내재적 조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자기결정성이 가장 큰 내재적 동기를 맨 앞에 두고 자기결정성이 가장 작은 무동기를 맨 뒤로 배치하였다.

둘째, MRQ, MRP, ERAS, RSCS 등 기존의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재분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다. 다만,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한 내용 중 항목이 5개 이상인 영역은 핵심적인 요소 5개를 추출하였고, 5개 이하로 부족한 영역은 자기결정성의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사 문항을 진술하였다.

셋째, 6개 영역별로 5개 문항씩 배치하여 영역별 점수와 전체 독서동기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무동기'에 배치된 문장은 부정문으로 되어 있어 통계분석 시에는 역 코딩 기법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넷째, 30개 조사 문항은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보통 초등학생의 경우 응답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중립적인 척도를 배제하고 4점 척도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초중등학생들이 공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5점 척도로 통일시켰다.

이러한 원칙에 의거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는 <표 11>과 같다. <표 11>에 제시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실제 독서동기를 측정하고자 할 때는 영역이나 문항수를 제외해야 할 것이다.

<표 11>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 제안

영역	문항수 (30)	내용	척도				
			전혀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그렇다				
			1	2	3	4	5
내재적 동기	5	1. 독서는 즐거운 일이다.	1	2	3	4	5
		2. 독서는 재미있고 흥미롭다.	1	2	3	4	5
		3. 독서는 보람되고 성취감을 준다.	1	2	3	4	5
		4. 독서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 있다.	1	2	3	4	5
		5. 독서는 시간가는 줄 모르게 완전히 몰입할 수 있다.	1	2	3	4	5
통합적 조절	5	6. 훌륭한 독자가 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7. 학교 성적 외에 더 많은 것을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8. 나의 미래를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9. 사람은 독서를 해야 사람답게 잘 살 수 있다.	1	2	3	4	5
		10. 독서는 나의 꿈을 실현하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이다.	1	2	3	4	5
동일시 조절	5	11. 독서는 중요하니까 책을 읽는다.	1	2	3	4	5
		12. 독서는 필요하기 때문에 책을 읽는다.	1	2	3	4	5
		13. 독서는 나의 미래를 결정할 만큼 가치가 있다.	1	2	3	4	5
		14. 독서는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이다.	1	2	3	4	5
		15. 내가 원하니까 책을 읽는다.	1	2	3	4	5
주입된 조절	5	16. 책을 잘 읽는 학생이라 인정받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17. 다른 친구들보다 더 많이 알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18. 친구, 형제, 자매 등 다른 사람과 대화하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19. 책을 읽지 않으면 무시당할까봐 책을 읽는다.	1	2	3	4	5
		20.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외적 조절	5	21. 좋은 성적(점수)을 얻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1	2	3	4	5
		22. 좋은 대학에 진학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1	2	3	4	5
		23. 숙제, 수업시간 등 학생으로서 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독서를 한다.	1	2	3	4	5
		24.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권유나 칭찬을 받기 위해서 독서를 한다.	1	2	3	4	5
		25. 다독상, 우수 독서감상문 등 상장을 받고 싶어서 책을 읽는다.	1	2	3	4	5
무동기	5	26. 독서를 왜하는지 모르겠다.	1	2	3	4	5
		27. 독서를 좋아하지 않는다.	1	2	3	4	5
		28. 독서는 중요하지 않다.	1	2	3	4	5
		29. 공부와 관련된 책이든 이야기책이든 독서는 무조건 싫다.	1	2	3	4	5
		30. 학교나 가정은 장소에 관계없이 독서는 지겹다.	1	2	3	4	5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는 향후 양적분석에 의한 신뢰도 측정, 요인분석, 타당도 및 변별도 등의 검증을 통해 표준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측정도구가 향후 표준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초중등학생들의 집단 및 개인별로 독서동기 수준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수준에 머물러 있는 동기 유형을 보다 내재적인 동기 유형으로 내면화할 수 있도록 교사가 동기유발 전략을 적용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5. 결론

옛말에 ‘말을 물가에 끌고 갈 수는 있어도 억지로 물을 먹일 수는 없다’는 말이 있다. 무슨 일이든 강제하기 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할 때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둘 수 있음을 이르는 말일 것이다.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도록 유도하는 동기유발이야말로 교육의 시작이자 가장 중요한 일이다. 독서교육에 있어서 독서동기 또한 마찬가지이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마음을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한다면 독서교육은 성공적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책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를 지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책을 읽고자하는 마음이 있어야 책을 읽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독서동기의 유발은 독서교육이나 독서 촉진 프로그램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만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다. 또한 해외의 경우에도 MRQ, MRP,

ERAS, RSCS 등 독서 동기 관련 측정도구가 마련되어 있으나 효용성과 실효성이 검증되어 최근에 널리 적용되고 있는 동기이론 즉,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한 독서동기 측정도구의 개발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내적동기와 외적동기와 같은 이분법적 동기 구분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성의 정도에 따라 동기의 유형을 세분함으로써 외적 동기를 내적 동기로 내면화할 수 있는 전략과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각 분야에서 널리 수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개인의 자율성에 따라서 다양한 동기 유형을 제시하고 있는 자기결정성 동기이론을 바탕으로 독서동기를 측정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MRQ, MRP, ERAS, RSCS 등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자기결정성 동기 이론의 6가지 동기 유형에 맞추어 재분류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자기결정성 이론이 반영된 독서동기 측정도구를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결정성 원리에 의거 측정도구의 영역을 무동기, 외적 조절, 주입된 조절, 동일시 조절, 통합적 조절, 내재적 조절 등 6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MRQ, MRP, ERAS, RSCS 등 기존의 측정도구를 분석하고, 재분류한 내용을 근간으로 하였다. 다만, 자기결정성 원리의 6개 범주로 재분류한 내용 중 항목이 5개 이상인 영역은 핵심적인 요소 5개를 추출하였고, 5개 이하로 부족한 영역은 자기결정성의 원리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조사 문항을 진술하였다.

셋째, 6개 영역별로 5개 문항씩 배치하여 영역별 점수와 전체 독서동기 점수를 산출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넷째, 30개 조사 문항은 각각 리커트 5점 척도로 표시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측정도구는 향후 요인분

석,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을 통하나 표준화 등의 실증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며, 본 연구는 향후 실증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1] 광재용. 2009. 독서동기의 요인과 유발 방안. 『동아인문학』, 16: 483-509.
- [2] 김민성, 신태수. 2010. 중학생이 지각한 학교의 심리적 환경과 자기결정성, 학습노력, 학업성취, 학교만족도의 인과관계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3): 43-70.
- [3] 박영민. 2006. 중학생 읽기 동기의 구성 요인. 『독서연구』, 16: 297-334.
- [4] 양미경. 2012. 내재적 학습 동기 연구의 동향과 과제. 『열린교육연구』, 20(4): 187-209.
- [5] 이민희, 정태연. 2007. 청소년용 학습동기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청소년연구』, 18(3): 295-321.
- [6] 이경화 외. 2011. 『교육심리학』, 개정판. 서울: 교육과학사.
- [7] 이영진, 조성만, 권태현. 2010. 고등학생의 읽기 동기 요인 분석. 『독서연구』, 24: 345-386.
- [8] 이순영. 2006. 독서동기와 몰입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이론적 고찰. 『독서연구』, 16: 359-381.
- [9] 한국도서관협회. 2013. 『한국도서관 기준』.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10] American Association of School Librarians, 2010. *Position Statement on the School Librarian's Role in Reading*. [online] [cited 2015. 5. 20.]
<<http://www.ala.org/aasl/sites/ala.org.aasl/files/content/aaslissues/positionstatements/slrolinreading.pdf>>
- [11] Alexander, J. E. and Filler, R. C. 1976. *Attitudes and Reading*. Newark: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12] Applegate, A. J. and Applegate, M. D. 2010. "A Study of Thoughtful Literacy and the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64: 226-234.
- [13] Arnold, S. L. 1899. *Learning to Read: Suggestions to Teachers of Young Children*. New York: Silver Burdette.
- [14] Coddington, C. S. and Guthrie, J. T. 2009. "Teacher and Student Perceptions of Boys and Girls Reading Motivation." *Reading Psychology*, 30: 225-249.
- [15] Conradi, K. et al. 2014. "Motivation Terminology in Reading Research: A Conceptual Review."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6(1): 127-164.

- [16] Deci, E. L. and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 [17] Eccles, J. 1983. *Expectancies, Values, and Academic Behaviors*. Spence, J. T. ed. San Francisco, CA: W. H. Freeman.
- [18] Ghaith, M. G. and Bouzeineddine, A. R. 2003. "Relationship Between Reading Attitudes, Achievement, and Learners Perceptions of Their Jigsaw II Cooperative Learning Experience." *Reading Psychology*, 24: 105-121.
- [19] Gambrell, L. et al. 1996. "Assessing Motivation to Read." *The Reading Teacher*, 49(7): 518-533.
- [20] Mathewson, G. C. 1994. *Model of Attitude Influence upon Reading and Learning to Read*. Ruddell, R. B. and Ruddell, M. E. ed. Newark: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21] McKenna, M. C. and Kear, D. J. 1990. "Measuring Attitude Towards Reading: A New Tool for Teachers." *The Reading Teacher*, 43: 626-639.
- [22] Pintrich, P. R. and Schunk, D. H. 1996. *Motivation in Education: Theory, Research, and Applications*. Englewood Cliffs, NJ: Merrill/Prentice Hall.
- [23] Ryan, R. and Deci, E.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y*, 52: 141-166.
- [24] Wigfield, A. and Guthrie, J. T. 1995. *Dimensions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An initial study*. Athens, GA: NRRC, Universities of Georgia and Maryland College Park.
- [25] Wigfield, A., Guthrie, J. and McGough, K. 1996. *Questionnaire Measure of Children's Motivations for Reading*. College Park, MD: National Reading Research Cente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Gwak, Jaeyong. 2009. "Factors and Teaching Methods of Reading Motivation." *Journal of East Humanities*, 16: 483-509.
- [2] Kim, Minsong and Sin, Taeksu. 2010. "Test of a Structural Model Among School's Psychological Environments, Self-Determination, Self-Regulated Behavior, Student Achievement, and School Satisfa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11(3): 43-70.
- [3] Pak, Youngmin. 2006. "The Reading Motivators of the Secondary Students." *Reading Research*, 16: 297-334.
- [4] Yang, Mikyeong. 2012. "A Critical Review of Research on Intrinsic Motivation in learning."

- Journal of Yeolin Education*, 20(4): 187-209.
- [5] Lee, Minhee and Jung, Taeyun, 2007.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Learning Motivation Scale." *Studies on Korean Youth*, 18(3): 295-321.
- [6] Lee, Gyeonghwa et al, 2011. *Educational Psychology*, revision, Seoul: Gyoyukgwahaksa.
- [7] Lee, Yeongjin, Jo, Seongman and Gwon, Taeh-yeon, 2010. "Factor Analysis of the Motivation on High School Students' Reading." *Reading Research*, 24: 345-386.
- [8] Lee, Sunyeong, 2006. "A Theoretical Review on the Factors Affecting Motivation and Engagement in Reading." *Reading Research*, 16: 359-381.
- [9]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Korea Library Standard*,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